화순 폐광에 전국 첫 농촌 돌봄마을

3년간 222억원 투입 의료·복지·치유 공간 조성
광업소 폐광 공동화 대응 "농촌재생·치유 모델"

화순광업소가 폐광하는 화순군 동면에 농촌 돌봄마을이 조성된다.

화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화순군 동면 오동리 일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순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와 지역 내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농촌 돌봄마을'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91억원, 지방비 131억원 등 3년간 총사업비 222억원을 투입해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힐링 농촌, 녹색치유 거점'을 비전으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동리 일대 5만2853㎡에 장기요양시설, 진료실·검사실·재활시설 등을 갖춘 통합의료시설, 로컬푸드 식당, 사회적 농업시설, 임시 거주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생산유발효과는 22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 110명 등이 기대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고령인구 돌봄 수요, 폐광 지역의 공동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며 "농촌 치유, 농촌 재생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KTX 가족친구 티켓-여수로' 무료 이벤트 연장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이달 200팀 추가 모집

코레일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KTX 가족친구 티켓-여수로' 무료 이벤트가 출시한지 2주 만에 조기 완판 됐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KTX 가족친구 티켓-여수로' 무료 이벤트 200팀 조기 완판에 힘입어 오는 5월에도 200팀 추가 이벤트를 실시해 총 400팀을 모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료 이벤트에 따라 4인이 주중(일요일~목요일)에 상품을 구입할 경우 호텔과 렌터카가 무료로 주어진다.

금·토·공휴일의 경우에도 렌터카는 2·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호텔의 경우 대폭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티켓 구입은 코레일 톡(관광상품-여행패키지)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여행상품-국내패키지-전라권),네이버 밴드(대한민국 기차여행 홍보게시물)를 통해 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순천여행센터(061-745-7785, 콜센터 1899-6177)로 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철새 마을 탐조·새집 만들기…"철새 박사 꿈꿔요"

신안군 흑산도에
철새마을학교 개교

신안군 흑산도에 '2022학년도 흑산 철새마을학교'가 개교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흑산도에 '2022학년도 흑산 철새마을학교'가 지난달 20일 개교했다.

흑산 철새마을학교는 지역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철새와 관련된 교육과 다양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철새박물관 학습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2학년도 철새마을학교는 지난달 흑산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 19명의 아이들이 입학했으며 1년간 총 8번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시간에는 입학식과 철새박물관 견학, 철새 그림 그리기 수업이 열렸다. 이어 철새마을 탐조, 철새 이동경로 연구 참여, 유리창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새집 만들기, 세계자연유산 신안갯벌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흑산도는 번식과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다양한 철새들이 매년 봄, 가을철에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250종 이상의 철새가 관찰되는 국제적인 철새 중간기착지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철새마을학교는 아이들의 고향인 흑산도의 생태적인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 학습장이다"며 "우리 미래세대들이 고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철새박사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민의 날, 3년 만에 열려…"청사진 제시"

해남군이 지난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를 열었다. 〈사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이자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 찾아온 향우 등 7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념사에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7기 역대 최고의 군정 성과를 거뒀으며 청렴도 향상과 매니페스토 최우수 평가 등으로 군민들의 자긍심이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매출 10배 상승,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등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등 농업 분야 혁신을 이끌었다고 향우들에게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4079억원 규모의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담양 역사 담은 조형물 '천년의 문' 준공

담양의 역사를 담은 조형물이 설치됐다.

담양군은 지난달 27일 담양천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담양지명 천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제작·설치한 '천년의 문'〈사진〉 준공식을 한국대나무박물관 인근 담양천년광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6년 담양천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군민 설문조사와 위원 회의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5개 사업을 최종 선정, 차질 없이 추진했으며 이번 천년담양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했다.

담양상징조형물은 너비 8m, 높이 6.25m 규모의 문주형태 화강석 조형물로 만들어졌다.

담양의 문화와 특징을 담은 천년 담양 문장과 전국 최초 12개 읍면 문장을 담았으며, 담양이 나아가야 할 미래 천년의 이정표가 될 담양천년선언문을 세기고 생태와 인문의 가치를 두는 담양군의 슬로건을 기록해 담양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천년광장이 담양의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해 미래 천년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영암경찰, 대불 치안협의체 집행위원회 첫 대면 회의

영암경찰은 최근 영암 대불산단 지역의 안정적인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기업·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불산단 치안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암 부군수와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 산단 대불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5개월간 추진한 생활안전·교통안전·외사치안 3개 분야 33개 과제 중 성과가 두드러진 25개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 향후 추진과제로 신호 연동제 확대와 3무(무등록·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단속 강화, 대불 부두 인근 가변 중앙분리대 설치방안 등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태규 영암경찰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일상회복에 접어든 만큼 민·관·경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등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